

해학과 웃음... 그 뒤에 남겨진 눈물 한방울



‘위풍당당’ 성석제 지음



소설을 소개하는 따지기에 적힌 ‘입담계의 아트이자 재담계의 클래식’이라는 글을 읽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성석제의 신작 ‘위풍당당’을 두고 이르는 말로 책의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차미령 씨의 글에서 따온 말이다. 이기호나 김중혁같은 후배 입담꾼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성석제의 ‘입담’에 즐거워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 수긍이 간다.

‘위풍당당’은 2003년 발표한 ‘인간의 힘’ 이후 무려 9년만에 나온 장편소설이다. 지금까지의 짧은 소설이나, 다양한 소재의 잡문들이 맛깔스럽기는 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오랜만에 출간한 장편소설은 탁월한 이야기꾼 성석제의 특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한적한 강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위풍당당’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등지를 뜬 마을 사람들과 이곳을 접수하려는 조폭들과의 일전을 그리고 있다.

성석제 소설의 재미는 다양한 캐릭터, 소설의 시작부터가 심상찮다. 한여름, 사탕 쓰고 배를 찌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가 무려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이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말더듬이 사내 영필도 만만찮다.

여기에 영필이 ‘어, 어무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어머니’ 소희 여사의 등장이나 조폭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는 짧은 처자 새미, 마을 사람들의 대척점에 선 조폭 ‘정목’ 패거리들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이 소설의 감점이다.

소설은 새미가 자신을 차치하려는 조폭을 피하려다 그 중 한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고, 조

폭들과 일전을 치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머와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다.

특히 ‘고춧묵 폭탄’, ‘분노 폭탄’에 속수무책 당하는 조폭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등에서는 성석제 특유의 문장과 어우러지면서 실재 없는 웃음을 유발한다.

불도저와 포클레인 등 중장비까지 끌고 들어오는 조폭들을 향해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온 이들 ‘유사가족’들은 죽을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작심한다. 성석제의 소설은 단순히 웃음폭탄을 터트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웃음 뒤에 감춰진 정한 무언, 촌철살인의 해학이 담겨 있다.

각각의 사연을 안고 마을로 모여든 주인공들의 ‘과거’가 조금 작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에서 파생된 부분들인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소설가는 ‘작가의 말’에서 ‘주어진 운명으로서의 식구가 아닌, 자신이 선택해서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가까에서 부대끼다 어느 결에 한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적고 있다.

이번 소설의 각 장에 붙여진 소재목들이 눈길을 끌었다. 범상치 않은 제목들이었는데 책 말미에 소재목들의 출전을 밝혀두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다면 내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 결 알아줘’, ‘난 농담을 시작했어요, 세상이 모두 울기 시작했을 때’ 등의 제목은 ‘피가로의 결혼’, ‘세발리아의 이발사’ 등 오페라와 레너드 코헨, 아트 가를름, 데미스 투소스의 음악들에서 따왔다. 책을 읽고 나면 음악이 들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자의 일생을 뒤따라가며 논어를 풀다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

이덕일 지음



유는 논어가 왜곡된 경우 많기 때문이다.

공자는 공자를 해명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선 사대부들은 사랑체에 들어앉아 책만 읽으며 백성의 고통을 짜냈다. 정도도 이런 해석에 의문을 품고 ‘학’이라는 글자에는 앞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도 함께 들어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논어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흔적을 함께 읽어내야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한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논어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와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옥당·1만75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논어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에서 ‘논어’는 이미 번역본만 100여 종이 나와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독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역사 저술가 중 한 명인 이덕일의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는 공자의 일생을 뒤따라가며 논어를 풀어놓는다.

저자는 공자에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말한다.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던 공자의 얼굴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인 공자의 얼굴(이미지화된 공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고, 공자의 전체상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공자의 삶과 논어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 행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 외 지음



히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다.

첫 만남에서 커틀러가 던진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물론 행복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현대의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리를 제시한다. 바로 ‘우리 모두는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문학의숲·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인이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 하나가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일 것이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등장하는 노동자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따분함과 욕망은 우리에게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아 갔다. 하지만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답은 다르다.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함께 쓴 ‘당신은 행복한가’는 행복에 대한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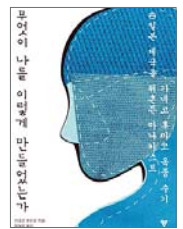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이후 10년 만에 출간된 이 책은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전쟁, 환경오염, 인종차별 속에서도 달라이 라마가 여전히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수기

따뜻한 남도 절터로 떠나는 여행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가네코 후미코 지음



일본 제국을 뒤흔들었던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의 아나키스트 박열의 동지이자 아내였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일본의 천황제와 대결하고 기존 제도, 관습에 맞서 투쟁하다 스물 세 살의 꽃같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 수기다. 이 수기는 재판에 참고가 될 만한 과거 경력을 써 내라는 예심 판사 다테마쓰의 명령에 따라 쓴 글이다.

후미코는 가난과 학대에 시달렸던 일본에서의 유년시절, 고모집의 식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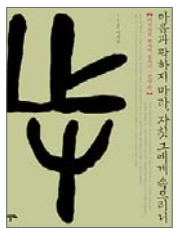
로 살았던 조선에서의 청소년 시절, 도쿄에서의 고학시절을 이야기한다. 특히 일본 사회 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결심한 그녀가 박열과 만나 진정한 아나키스트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써내려갔다.

1926년 사망한 후미코의 유해는 2003년 박열 의사 기념관 옆으로 이장됐다. <이화사·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음과 짝하지 마라...’

이지누 지음



한국 문화를 깊이있게 다룬 ‘디세 집’ 편집인을 맡았던 이지누의 글과 사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칭 그에게 속으리니’는 저자가 8권으로 발간 예정인 ‘이지누의 폐사지 탐사기’ 시리즈의 첫번째 권이다.

발걸이 처음 닿은 곳은 유배촌 처지였던 선비 이주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진도 금골산 토굴터이다. 바위에 새겨진 독특한 부처님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저자는 선비의 쓸쓸한 심

정을 헤아리다 500년의 시공을 초월해 그와 자신을 이어준 ‘인연’에 대해 생각한다.

이어 저자는 천관산의 장흥 탐사터, 벌교 징광사터, 화산 운주사터, 영암 용암사터 오 쌍계사터, 강진 월남사터, 곡성 당동리 절터, 무안 총지사터 등을 돌아본다.

개인적인 감상 뿐 아니라 자세한 역사적 사실과 미학적 시각까지 두루 살펴볼 만한 책이다.

<알마·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성산업,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성장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강준만 지음



인도 서부의 바디아 마을 출신 여성들에게 매매춘을 강요당하며 여러 대에 걸쳐 매매춘을 직업으로 삼아왔다. 매매춘은 인류의 역사 곳곳에 등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원시공동체사회부터 매매춘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신간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를 통해 한국의 매매춘이 근대화와 어께를 나란히 한다고 강조한다. 개화기에 흥풍가가 들어서며 매매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미군정, 군사정권 등을 거치며 매매춘과 긴 동거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또 미군의 주둔 과정에 매매춘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때론 정치적 명분을 위한 전략적 용도로 이

용됐다고 지적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1970년대 이후 주춤했던 외국인 기생 관광을 한껏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됐고, 자연스레 에이즈 환자도 급증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도입은 매매춘에 ‘날개’를 달

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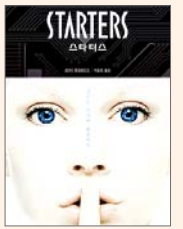
저자는 한국의 성 산업이 국가의 방조와 적극적인 개입 아래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조선총독부·미군정·군부독재정권 등이 권력을 갈구 할 때, 매매춘 여성은 언제나 그 뜻을 피워주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책의 부록에는 우리 사회의 성 풍속도를 되돌아보는 ‘한국 간통의 역사’를 다룬다.

<인물과사상사·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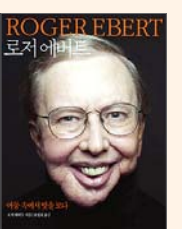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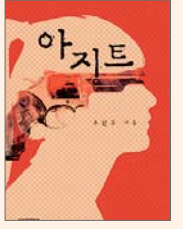
▲스타터스=가까운 미래, 타인의 육체를 대여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스릴러 소설로 리사 프라이스의 데뷔작이다. 생동화 전경으로 중장년층이 모두 사랑하고 스타터스라 불리는 10대들과 언더라 불리는 노인들만 살아남는다. 힘들게 살아간 클리는 아픈 동생을 위해 다시 젊어지고 싶어하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10대의 몸을 고가의 금액을 받고 대여해주는 ‘바디 뱅크’를 찾아간다. <황금가지·1만3800원>



▲내 삶의 변주곡 클래식=경주교전음악감상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지리교사 류준하가 ‘내 음악회 가봤니?’에 이어 두번째 펴낸 클래식 음악 가이드다. 클래식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차선생과 박은려가 초보자 류수연의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책이 구성돼 있어 쉽게 읽힌다. 베토벤,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대표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협암사·2만2000원>



▲로저 에버트-어둠 속에서 빛을 보다=‘포보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이자, 플라체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화 평론가인 로저 에버트의 회고록이다. 갑상선암 합병증으로 목소리를 잃으면서 더욱 많은 글을 쓰고 있는 로저 에버트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과정, 결혼, 정치관, 믿음 등을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우정, 존 웨인, 로버트 미첨 등 수많은 영화인과의 만남 등도 솔직하게 기록했다. <연암서가·3만원>



▲미술품 위조 사건=저널리스트 출신 부부 작가인 레니 셀리스베리와 엘리 수조가 공동 집필한 논픽션이다. 교수, 물리학자 등 수많은 가면을 쓰고, 20세기 최고의 미술 사기로 꼽히는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 존 드류와 그에게 속아 넘어가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 된 가난한 화가 존 마이어트가 펼쳐지는 20세기 미술계에서 벌어진 최고의 사기극을 속도감 있게 그렸다. <소담출판사·1만5000원>



▲자신만만 전통 과학=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12가지 전통 과학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6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읽히기 좋다. 자연을 담은 딱딱한 집 한옥, 김치, 된장·고추장 등 몸에 좋은 발효 음식, 구운 풀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숨쉬는 그릇 옹기, 돌로 만든 얼음 석빙고, 신비로운 인조 석굴인 석굴암, 천년을 버티는 종이인 한지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이즐·9500원>



일 정해진 시간, 구불구불 길을 따라 신나게 달리던 두더지 버스가 길가에 자란 죽은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한림출판사·1만원>



▲세미리 토끼 잡는 독서 눈술=전25권으로 구성된 눈술 학습 시리즈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동화, 동시, 만화, 논설문, 설명문, 전기문 등 다양한 글을 읽고 언어, 사회, 수

리, 예체능, 눈술 등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주 동안 학습할 독서 자료를 미리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 다음 매일 3장씩 읽고 문제를 풀어가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사피엔스어린이·각권 9500원>

▲백조의 호수=주니어 음악동화 첫번째 시리즈로 오테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명작 발레를 그림책으로 옮겼다. 무대감독으로 ‘백조의 호수’를 수차례 무대에 올린 마르코 심사가 쓴 글로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과 해설이 담긴 오디오 CD를 함께 증정한다. <주니어북스·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